



수어 동시통역 전략의 사례분석 연구*

김 동 호** · 홍 성 은***

A Case Study of the Strategies of Simultaneous Interpretation of Sign Language*

Kim, Dong-Ho** · Hong, Sung-Eun***

ABSTRACT

[Purpose] This is a case study on the strategies of simultaneous interpretation from spoken language to signed language based on the fact that the same method and mechanism of interpretation used for spoken language can be applied to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Methods]** To analyze the strategies, simultaneous interpretation from Korean(source language) into Korean Sign Language(target language) by five sign language interpreters was filmed and evaluated by deaf native signers for comprehensibility. **[Results]** The following strategies, categorized by type, take into account the visual features of sign language. First, cognitive strategies for understanding the message include Ear-Voice Span, pause, chunking, and anticipation. Second, production strategies for the efficient meaning of the message include syntactic transformation, substitution, particularization, addition and additional explanation. Third, omission, summarizing, compression, and generalization serve as efficiency strategies of expression. Fourth, transcoding and omissions fall under emergency strategies. Fifth, there is repairing, a monitoring strategy that can also be viewed as a meta-strategy. **[Conclusion]** We believe that through this case analysis, we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Key Words: Sign Language,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Strategies for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Strategies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2022년도 석사 학위논문 일부를 수정·보완하였음.

** 제 1저자, KBS 수어통역사(east5623@hanmail.net)
News Sign Language Interpreter, Korean Broadcasting System

*** 교신저자, 강남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과 초빙교수(sungeunhong2001@gmail.com)
Professor, Dept. of Special Education, Kangnam University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언어는 유일한 사회적 관습으로 일컬어지며, 문화적 공동체를 구성하는 중심에는 항상 언어가 있다. 이 언어의 일차적인 목적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다(남성우, 2006). 우리말로 ‘의사소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서로의 정보를 전달 및 교환한다(정호정, 2007). 인간은 의사소통을 통해 관계를 형성시키고 발전시켜 왔으며, 현대사회에서 의사소통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생활방식이자, 의미를 공유하기 위한 의도적인 상호작용 과정이다.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통역’이다.

Seleskovitch(1968)는 ‘통역’을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으로 보면서, 원 메시지를 분석하여 얻어진 의미를 언어·문화가 다른 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이라고 하였다. Pöchhacker(2004)는 번역과 구별되는 통역의 대표적인 요소가 바로 ‘즉시성’(immediacy)이며, 의사소통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금, 여기에서’(here and now)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통역의 영역 가운데 수어통역은 수어를 언어로 사용하는 집단과 음성언어를 사용하는 집단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다. 즉, 농인과 청인 사이에서 음성언어(한국어)를 수어로 또는 수어를 음성언어(한국어)로 바꾸어, 두 집단 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의사소통을 위한 동시통역은 서로 다른 언어 간에 통역사가 개입하여 연사가 발화한 자연어의 미묘한 뉘앙스와 복잡한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포착하여 의미의 왜곡 없이 출발어 텍스트(ST, Source Text)를 도착어 텍스트(TT, Target Text)로 거의 동시에 전환하는 고도의 지적 작업이다(이정순, 2016). 이러한 동시통역은 가장 복잡한 언어 과정 중의 하나로, 많은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시각을 비롯한 새로운 입력이 지속적으로 제시되는 동안 통역사는 입력을 이해하고, 메모리에 의미를 저장하는 과정을 동시에 관여해야 한다. 동시에 이전의 의미 단위(Segment)를 도착어로 재구성해야 하는 등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Christoffels & Annette, 2005).

출발어의 빠른 속도와 구조적 복잡성은 동시통역의 시간적, 인지적 제약 하에서 높은 정보처리 부하가 발생하게 되어 대처 전략*이 필요하게 된다. 수어통역에서도

* Van Dijk & Kintsch(1983)는 ‘전략’에 대해 담화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인지적 과정의 일환으로 설명하였다. 응용 언어학 학문과 관련해서 ‘전략’은 개인이 특정 의사소통 목표에 도달하는데 문제로 나타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잠재적이며 의식적인 계획(potentially conscious plans)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수행 기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략이 사용된다.

Riccardi(1999)는 동시통역 과정에서의 전략을 시간적 제약 하에서 지속되는 인지적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수행되는 것으로, 통역 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때 도움을 준다고 하였으며, Kalina(1998)는 여러 통역전략들이 상호 관계 속에서 네트워크를 이루는 전략적 과정(strategische Prozesse)이라고 하였다.

수어는 음성언어의 시간적 선형성과는 달리, 시각적 언어 양식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하위 어휘 정보를 공간 속에서 동시적으로 표현하는 ‘동시성’이라는 고유한 형태를 지닌다(김칠관·윤병천, 2011; 정수정, 2020; Padden, 1990; Napier, 2006). 수어통역사는 이러한 수어의 고유한 언어 형태**를 활용하여 통역을 수행하게 된다.

지금까지 음성언어 통역의 경우, 동시통역 전략들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이태형, 2005; 황세원, 2007; 원종화, 2010; 김경희, 2012; 이미경, 2012; 이순수, 2015; 이정순, 2016; 최문선, 2019; Kohn & Kalina, 1996; Jones, 1998; Riccardi, 2005; Ziobro-Strzpek, 2019).

반면에 수어통역에 대한 연구들은 통역의 역출력이나 시간적 측면 등의 양적인 측면을 평가하거나, 통역 과정에서의 생략 및 첨가, 왜곡 등의 품질을 평가하는 관점에서 전략들이 연구되었다(최상배, 2010; 민은주, 2013; 고인경, 2021; Cokely, 1986; 白澤麻弓, 2003, Napier, 2016).

그간의 수어통역 연구는 수어통역 품질에 대해 평가 관점에서 이루어온 바, 수어통역 과정에서의 체계적인 전략이 제시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로 인해 수어통역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통역 방법론에 관한 갈급함이 해소되지 못한 채 통역사 개인의 경험과 방법에 의존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어통역 현장에서의 실천적 대안과 방법을 제시하고자, 지금까지 연구된 바가 없는 수어의 시각언어 특성을 반영한 ‘수어 동시통역 전략’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수어 동시통역의 실질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수어통역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사이에서 외줄타기 하듯 (Gile, 1995) 통역을 수행하는 통역사들에게 수어의 시각언어 특성을 반영한 실천적

** 윤병천(2001)은 수어의 특성으로 공간적 배열, 자의성과 유계성, 동시성, 가역성, 반복성, 관용어 그리고 비수지 신호(Non-manual signals)로 설명하였다. 특히 공간 차원에서 수어통역사는 몸의 공간을 음운론적으로 사용하거나 형태학적 공간, 그리고 담화적 공간을 사용하며(Padden, 1990), ASL (American Sign Language)에서의 공간은 통사와 담화의 역할을 하면서 명사의 배열, 대명사적 지시, 동사 일치, 대용적 지시 등의 역할을 한다(남기현, 2003).

인 전략 유형과 사례를 제시하고, 나아가 수어통역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통역의 기술에 해당하는 방법론적인 ‘전략’을 탐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성언어(출발어, L1)-수어(도착어, L2) 동시통역에서 수어통역사들이 사용하는 전략을 사례 분석하고, 이에 따른 수어 동시통역의 전략을 유형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어 동시통역에서 통역사들은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가?

둘째, 수어 동시통역의 전략 유형을 제시할 수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의 참여자는 현재 수도권에서 수어통역사로 활동 중인 ‘국가 공인 수화통역사’ 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들은 최소 11년에서 24년의 활동 경력이 있으며, 현재 평균 주 3회 이상의 동시통역을 수행하고 있다. 2명은 농인 가족으로, 농인 배우자와 농인 부모를 가족으로 두었다. 성별은 남성 2명, 여성 3명이며, 연령은 30대에서 60대까지로, 평균 45.8세이다. 연구 참여자의 익명을 보장하기 위해 참여자의 이름은 알파벳으로 처리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Interpreter

Interpreter	Gender	Deaf Family	Years of experience	Frequency of Interpretation	Work of Area	Education
A	Female	○	15 years or more	4 times a week	News, Sermon	Bachelor's degree
B	Male	×	20 years or more	4 times a week	News, Current events, Celebration	Bachelor's degree
C	Female	○	10 years or more	5 times a week	News, Law court, Celebration, Lecture	Master's degree
D	Male	×	15 years or more	7 times a week	News	Bachelor's degree
E	Female	×	20 years or more	3 times a week	News, Law court, Celebration, Lecture, Theatre	Master's degree

2. 통역 사례의 의미이해 평가

통역 결과물을 사례 분석하기 전에 수집된 통역 사례들이 통역의 기본 목적인 의사소통에 부합하는 자료인지를 검토하였다. 촬영된 수어통역 영상은 수어를 제1 언어로 하는 농인 3명을 대상으로, 7점 척도의 문장 단위별 의미이해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최저 89.9에서 최고 94.2점으로, 평균 91.2점의 매우 양호한 점수 결과가 나왔으며, 사례 분석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였다.***

3. 연구진행 과정

본 연구의 텍스트 자료는 수어통역사들이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자주 접하는 전형적인 연설문의 형태 중에서 주제 친숙도와 내용 이해, 그리고 과도한 전문용어가 포함되지 않는 등의 선정 기준을 참고하여(Ziobro-Strzpek, 2019), 2019년 ‘39회 장애인 날 기념식’의 축사(이낙연 총리, 6분)를 선정하였다.

동시통역 시에 잡음이 있을 경우 통역의 정확도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Gerver, 1974), 잡음 등의 변수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KBS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사전 녹음하였다.

기념식 현장에서는 통역할 원고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로 수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감안하였으며, 동일한 상황에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은 전달하지 않았으나, 통역 주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시통역의 상황에서 통역사가 내용을 이해하고 상황에 적응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통역 시작 후 약 2분가량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4분 06초를 사례 분석하였다. 분석할 내용의 음절수는 291개이며, 연사의 발화 속도는 분당 음절수 71.7 SPM(Syllables Per Minute)으로, 문장 간 1-2초의 휴지가 주어진다. 또한 녹음 시 실제 원본의 속도와 최대한 유사한 속도를 고려하여 녹음하였다.

4. 수어 전사 방법

자료 분석은 통역이 촬영된 영상을 프리미어6로 편집 작업하였으며, 앞부분 2분을

*** 해당 의미이해 평가는 출발어 텍스트를 도착어와 비교하여 통역물을 산정하는 평가가 아니며, 통역 결과물에 대해 이해 평가하였다. 두 언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출발어의 메시지를 듣고 도착어의 품질을 결정할 수 있는데, 사용자는 출발어 텍스트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하기에 품질이 좋은지 판단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Kurz, 2001; De Wit & Sluis, 2012).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De Wit & Sluis(201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도착어 텍스트의 통역물을 평가하기 위해 의미이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제외한 4분 06초를 수어로 전사하였다. 촬영된 수어통역의 전사는 선행 연구(윤병천, 2003; 이윤희, 2008; 이정옥, 2012; 민은주, 2013; 송미연, 2016) 등을 참고하여 실시하였으며, 엘란(Elan 6.4), 동영상 플레이어, 한글, 엑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손의 구분은 위첨자로 오른손^(R), 왼손^(L)으로 구분하고, 오른손을 ‘우세손’으로 하는 단어는 좌/우 표기를 별도로 하지 않았으며, 지화나 숫자의 경우 ‘#’를 사용하였다. 공간사용은 우측과 좌측, 정면, 몸쪽, 앞쪽 등으로 구분하면서 팔의 위치, 어깨, 시선 등을 고려하여 구분하였다. 단어는 최대한 동사형으로 통일하였으며, 연결어가 사전에 등재된 경우 연결어로 표시하였고, 단어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첨자^(팔호)로 추가 기재하였다. 일치동사의 경우는 방향을 위첨자의 괄호 안에 별도로 기재하였다. 예를 들어 ‘충고받다’는 [충고하다]^(우측→몸쪽)으로 기재하였다. 단어가 동시에 표현되거나 순차적이더라도 동시 구현되는 순간이 있는 경우는 단어 사이에 ‘/’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단어와 비수지가 동시에 표현하는 경우에 비수지의 의미가 부가적인 의미로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표기를 하지 않았다.

수어의 개시 동작과 종료 동작을 구분하기 위해 선행 연구를 참고하였다(白澤麻弓, 2003; 최상배, 2010). 수어의 움직임이 시작하여 실질적으로 단어 형태가 표현된 시점을 개시동작으로 보았으며, 종료 시점은 손의 운동이 정지되어 수어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지점이나 수어단어가 종료되어 손이 아래로 내려온 동작지점을 종료 시점으로 구분하였다.

전사된 내용은 ‘국가 공인 수화통역사’로 2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통역사와 활동 경력 10년 이상으로 부모가 농인인 통역사에게 감수 받았으며, 감수 결과 95% 일치를 보였다. 다만, 시각 형태의 수어를 한국어 음성체계를 빌려 주석 형식의 글로스(gloss) 처리를 하게 되면서 수어의 의미가 완전히 담기지 않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

Ⅲ. 연구결과

1. 통역 전략의 사례 분석

선행연구를 토대로 전략 사례를 분석한 결과, EVS 평균은 2.9초였으며 그 외에 사용 빈도가 높은 순서로 나열하면 단어 및 구절 대체(33.5%), 휴지(문장 간 휴지, 15.7%), 추가(14.0%), 생략(9.6%), 의미덩이 짓기(대기, 8.0%), 통사구조 변환(7.8%), 구체화(2.9%), 수정(1.9%), 압축(1.8%), 누락(1.2%), 부가 설명(1.1%), 요약(0.8%), 직역(0.7%), 예측(0.5%), 일반화(0.5%) 전략 순으로 사용되었다.

<Table 2> Case Analysis of Strategy

Area	Strategy	Interpreter					Total (N)	Average (N)	Etc
		A	B	C	D	E			
1	EVS	2.1	2.9	2.0	3.8	3.5	-	2.9	(Second)
2	Substitution	46	52	44	48	86	276	55.2	
3	Pause	30	31	29	13	25	129	25.6	
4	Addition	24	24	17	33	16	115	22.8	
5	Omission(생략)	17	19	6	15	22	79	15.8	
6	Chunking(waiting)	19	9	4	8	26	66	13.2	
7	Syntactic Transformation	8	17	6	18	15	64	12.8	
8	Particularization	6	7	3	5	3	24	4.8	
9	Repair	3	2	2	9	0	16	3.2	
10	Compression	3	5	0	0	7	15	3.0	
11	Omission(누락)	5	0	1	2	2	10	2.0	
12	Additional Explanation	4	1	0	3	1	9	1.8	
13	Summarizing	2	1	0	3	1	7	1.4	
14	Transcoding	1	1	3	1	0	6	1.2	
15	Anticipation	1	2	0	1	0	4	0.8	
16	Generalization	0	1	0	1	2	4	0.8	

1) EVS(Ear-Voice Span, 청성시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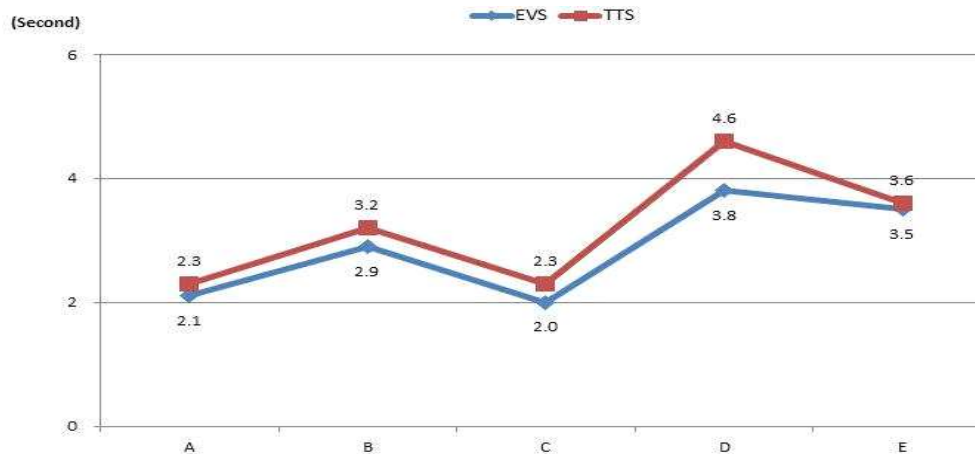
동시통역의 시간적 압박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략으로, 출발어 텍스트 입력과 도착어 사이의 최소 시간 지연을 유지하는 EVS(Ear-Voice Span; Time Lag; 청성시차)가 있다.

통역사 5명을 대상으로 문장 간의 EVS를 측정한 결과 평균 2.9초의 결과가 나왔다. Cokely(1986)의 연구에서 ASL 통역사의 평균 EVS가 2-4초 발생하였으며, 이태형(2005)에서도 EVS가 2.5-3초에 집중되었다.

<Figure 1>에서 통역사 B의 EVS의 경우 평균 2.9초로, 문장 간에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였던 반면에, 통역사 C의 경우는 평균 2.0초로 가장 짧은 EVS가 나왔으며, 통역사 D의 경우에는 평균 3.8초로 가장 길었다. 통역사 D와 E의 경우 문장 간 최대 6초까지 시차가 길어졌는데, EVS가 길어지면서 출발어 텍스트의 통역 수행이 지연되고, 후속 문장 간에 휴지 없이 바로 시작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EVS가 짧으면 출발어 텍스트의 의미 이해 및 분석에 어려움이 생기고, 반대로 길어지면 통역사가 기억해야 할 텍스트가 늘어나면서 정보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태형(2005)은 EVS가 길어질 경우 늦게 발화가 시작되면서 단기기억에 저장해야 할 정보량이 많아져 후속 문장 통역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통역사 D의 경우 EVS가 길어지면서 TTS****도 길어져, 후속 문장의 처리시간이 지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TTS(Tail-to-Tail span): 화자의 출발어 텍스트가 끝난 시점에서부터 통역사가 해당 문장을 도착어로 발화를 끝내는데 걸린 시간.



〈Figure 1〉 EVS & TTS

2) 단어 및 구절 대체(Substitution)

대체는 단어나 구, 절에서 의미가 유사한 단어로 변경하여 통역하는 경우를 말한다(최상배, 2008). 白澤麻弓(2003)는 수어에서 지시어나 애매한 단어를 설명하는 것에서부터 어구를 설명하거나 동의어로 대체, 또는 돌려 말하는 것을 대체에 포함하였다. 예를 들어 효과가 ‘좋다’를 효과가 ‘크다’로 대체하는 것 등을 말한다.

통역사 5명의 평균은 55.2회로 나타났다. 통역사 E의 경우 다른 통역사들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체의 유형 중에 ‘지시’를 통해 주어부를 대명사화하거나 공간을 지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문 1〉에서 ‘그동안’의 경우 [동안]으로 표현하기도 하였지만, [전에] 또는 [지금] [까지] 등으로 대체하여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는 지시를 통해 대명사화하여 대체하였다.

〈예문 1〉

출발어: 그동안 25만원씩 받아오신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도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3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도착어: [전에]^(L) [#25만]^(L) 돈^(L, 왼쪽몸→정면) [장애인] [기본]^(L) [돈]^(L) / [지시]^(R, 왼손 지시) [돈]^(R, 아래→위) [#30만]^(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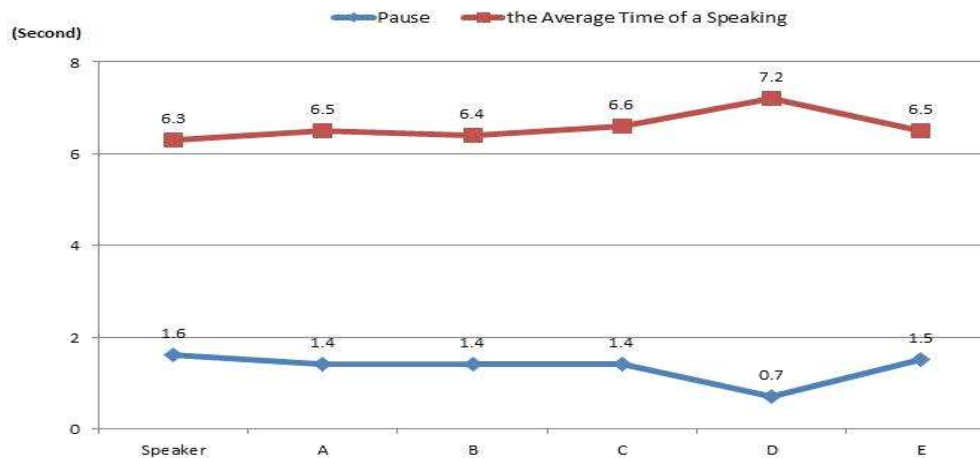
3) 휴지(Pause)

시차를 이용한 이해 전략 가운데 휴지는 지연(delay), 시간 끌기(stalling) 등과 유사

한 전략으로, 연사의 발화에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잠시 쉬는 것을 포함하여 메시지 이해에 필요한 품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다(원종화, 2010).

본 연구에서는 출발어 문장 사이의 휴지(평균 1.6초)에 맞춰, 통역사가 휴지한 결과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31개의 문장에서 평균 25.6회의 휴지가 사용되었다. 문장 간의 휴지는 EVS와도 관련되어 출발어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된다.

문장 간의 EVS를 일정하게 유지한 통역사 B의 경우에는 31번의 휴지를 사용하면서 연사의 평균 발화 시간과 가장 유사한 발화 시간을 구사하였다. 반면에 통역사 D의 경우 EVS가 길어지면서 평균 발화 시간도 7.2초로 길어지고, 후속 문장을 통역하는 과정에서 가장 적은 13회의 휴지와 0.7초의 가장 짧은 휴지 시간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휴지가 없거나 짧아지는 경우에는 후속 문장의 EVS와 TTS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Figure 2 참고>).



<Figure 2> Pause & the Average Time of a Speaking

4) 추가(Addition)

추가는 도착어 텍스트의 응집력을 위한 접속사에서부터 수식어, 그리고 동일한 형태의 반복 등을 포함하는데(Ziobro-Strzpek, 2019), 수어에서는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기도 하고, 반대되는 의미를 추가함으로써 출발어 텍스트의 의도를 더 부각할 수도 있다.

통역사들은 평균 22.8회의 추가를 사용하였는데, 통역사 D의 경우 33회의 추가 전략을 사용하여 문장당 평균 1회 이상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Figure 1>과 <Figure 2>에서 볼 수 있듯이, EVS와 TTS 그리고 평균 발화 시간이 길어지는 것과 문장 간의 휴지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문 2>에서 출발어 텍스트(‘처음 있는’)의 반대 의미로 [전에] [없다]를 추가함으로써 텍스트의 의도를 더 부각하였다. 또한 단어의 반복을 통해서 의미효과를 높이는 경우도 있었다.

<예문 2>

출발어: 그것은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진전입니다.

도착어: [지시]^(R,우측) [전에] [역사] [전에] [없다] [처음] [발전하다] [지시]^(R,우측)

5) 생략(Omission)

동시통역에서는 출발어 텍스트의 75-80%가량이 도착어로 전해진다. 출발어에서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인 ‘음.., 아..’ 등이 주로 생략하게 되는데, 유사한 개념으로는 건너뛰기(Skipping), 걸러내기(Filtering)가 있다. 통역사들은 평균 15.8회의 생략을 구사하였으며, 통역사에 따라 많게는 22회, 적게는 6회의 생략을 하였다.

<예문 3>에서는 ‘이 자리를 빌려’를 생략하였다. 시차를 고려할 때 통역사는 문맥상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Ziobro-Strzpek(2019)에 따르면 전문 통역사의 경우 주로 문맥의 일치를 위해 도움이 되는 단어 또는 짧은 구문을 생략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예문 3>

출발어: 지자체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도착어: [지방] [다스리다] [지역]^(반복,우측→좌측) [장]^(R,남자수형,2회,좌측→우측) <생략> [감사하다]

6) 의미덩이 짓기(Chunking)

의미덩이 짓기는 통역 수행 중에 기억 단위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의미 단위로 덩어리 짓는 전략이다. 이는 의미 단위로 기억하기 위한 작업기억과도 관련이 있다.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는 3초에서 30초 정도까지 유지될 수 있으며, 작업 메모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Miller(1956)에 의하면 $7(\pm 2)$ 단위 항목이라고 한다.

의미덩이 짓기의 경우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동작이 아니어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Piccaluga & Harmegnies, 2006). 그리하여 의미덩이를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 중에 통역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최소 의미를 기다리는 대기(Waiting)^{*****} 현

***** 도착어 생산을 늦추고 듣기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미세 일시정지(Micropauses)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Tissi, 2010).

상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동사부를 중심으로 의미덩이를 나누어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수어 통역에서는 주어부를 끝내고 서술어 형태를 취하기 전에 대기 현상들이 일어났다. 수어문장의 텍스트 구성을 위해 <예문 4>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어부를 처리한 후 후속 단어들이 들리기를 대기하였으며, 그 외에도 주어부를 지칭한 후 후속 입력을 기다리면서 대기하였다.

통역사들은 평균적으로 13.2회를 수행하였으며, 통역사 C의 경우는 가장 적은 4회의 대기가 있었으나, 통역사 E의 경우 26회로 가장 많은 대기가 있었다.

그리고 수어의 텍스트 구성에서 일시나 사건의 공간적 배경을 먼저 구사하는 것처럼, 통역사도 이러한 표현을 먼저 구사한 후 후속 입력을 위해 잠시 대기하는 현상도 있었다.

<예문 4>

출발어: 4차 산업혁명은 장애인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도착어: [#4]^(L)/[#차]^(R) [산업] [혁명] <대기> [자연] [장애]^(R) [살다] [새롭다] [바뀌다]^(우측, 2회) [오다]^(2회) [아마]

7) 통사구조 변환(Syntactic Transformation)

통사구조 변환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대상, 강조 또는 부각하고자 하는 대상, 그리고 설명하고자 하는 주어에 ‘은/는’을 붙여서 주제부-설명부의 구조로 표현하는 ‘주제부화’를 비롯하여, 구나 종속절을 주절로 변환하는 ‘초점 전이’, 능동태를 수동태로 변환하거나, 문장 내에서 관계절 혹은 종속절을 이동 또는 부정문을 긍정문 등으로 변환시키는 전략 등이다(허지운, 2020).

수어의 경우에도 의도적으로 초점(focus)과 화제(topic)를 부각하는 문장 유형들이 있으며(이준우·남기현, 2014), 한국어의 ‘형용사+명사’, ‘관형사+명사’, ‘부사어+서술어’의 한정적인 형태를 ‘명사+서술어’ 형태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맛있는 사과’는 ‘사과가 맛있다’라고 명사를 설명하는 형태로 표현한다(최상배, 2008). 또한 한국어의 경우 주어부가 종종 생략되는 경우가 있으나, 수어에서는 주어부를 삽입하여 도착어 텍스트를 구성한다.

통역사들은 평균 12.8회의 통사구조를 변환하였는데, 주로 긴 문장을 ‘주어+서술어’ 형태의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구사하여 의미 전달을 용이하게 하였다. 통역사 A, C는 10회 아래로 나온 반면에, 통역사 B, D, E의 경우 15회 이상 사용하였다. 통역사 C의 경우 가장 적은 6회로 나왔는데, EVS와 TTS가 다른 통역사들에 비해 짧은 점을 감안할 때 출발어 텍스트의 영향으로 통사구조 변환이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Figure 1〉 참고).

〈예문 5〉의 경우, 출발어의 수식 문구를 도착어 어순에 맞게 서술어로 변경하면서 문장을 나누어 짧게 구사하였다(‘장애 시설에 살다’ / ‘지역사회로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 / ‘적극적으로 돕다’). 그 외에도 주제화 구문을 위해 문장을 짧게 나누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이 계획은’ → [지시] [계획하다] [무엇?]^(휴지)으로 구조를 변환하였다.

그리고 Gile(1995)에 따르면 출발어의 열거된 정보 중에서 나중 열거된 정보를 먼저 발화함으로써 기억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나열된 정보의 순서를 변경하면서 문장 구조를 짧은 형태로 변환하여 구사하였다.

〈예문 5〉

출발어: 시설에 계신 장애인들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성심껏 돕겠습니다.

도착어: [장애인]^(좌측) [시설]^(좌측)/[안에]^(좌측) [살다]^(좌측) [지역]^(우측) [사회]^(우측) [오다]^(양손교차, 3회, 좌측→우측 몸쪽) [원하다] [사람] [돕다]^(우측) [적극적이다]

8) 구체화(Particularization)

구체화는 출발어 텍스트의 개념을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어떤 개념의 하위 요소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통역사들은 평균 4.8회의 구체화 전략을 사용하였으며, 수어에서는 이 구체화의 형태가 생산적 수어*를 사용하는 범주로도 연결이 된다. 〈예문 6〉에서는 로봇이 걷는 모습을 생산적 수어로 표현하였으며, 〈예문 7〉에서는 장애인 등급제를 하위 정보인 급수(‘1급’, ‘2급’, ‘3급’)로 구체화하여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전하였다.

〈예문 6〉

출발어: 보행 로봇이 휠체어를 대신하고, 스마트 안경과 스마트 보청기가 장애인의 눈과 귀를 밝게 해드릴 것입니다.

도착어: [기계] [#로봇]^(R, 우측) [로봇 걷는 모습]^(양손 1지 구부려서 걷는 모습) [지시]^(R, 좌측) [대신하다]^(좌측→우측) [휠체어]^(양손, ‘바퀴’ 수어) [대신하다]^(우측→좌측) [보청기]^(R, 반복) [좋다]

* 생산적 수어는 맥락 속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수어로서, 농인들이 일관성있게 다시 산출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구별이 가능한 시각-체스처 행위이다(Johnston & Schembri 1999; 송미연·홍성은, 2020 재인용). 도상적인 수형들 뿐 만 아니라, 위치 등의 공간정보, 움직임의 순서나 행동의 차례 등을 표현하며 분류사도 포함된다.

[자연] [듣다] [좋다] [눈]^(양손 지시) [관계하다] [매우] [돕다]^(좌측) [가능하다]

<예문 7>

출발어: 특히 기존의 **장애인 등급제**가 장애인의 환경과 욕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착어: [전에] [**장애**] [**등급**]^(목록) [**#1**]^(L, 좌측)/**[#급]**^(R, 좌측) [**#2**]^(L, 좌측)/**[#급]**^(R, 좌측) [**#3**]^(L, 좌측)/**[#급]**^(R, 좌측) [지시]^(R, 좌측 위→아래 지시) [**장애**]^(좌측) [**환경**]^(좌측) [맞지 않다]^(좌측, 3회) [건의하다]^(좌측→몸쪽) [지시]^(R, 좌측) [이번] [**#7**]^(L) [월]^(R) [부터] [**장애**] [**등급**]^(목록, 좌측) [고개를 좌우로 흔들]^(비수지) [손에서 버리다]^(R, 좌측) [결정하다]

9) 수정(Repair)

모니터링 전략은 전략적이고 부분적으로 자동화된 프로세스로, 통역의 모든 과정에 적용된다(Kalina, 1998). 통역 과정에서 통역사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통역 결과물을 인식하면서 수행해야 한다(Jones, 1998). 모니터링 전략의 경우 출발어의 내용을 들으면서 앞으로 주어질 후속 정보를 유추하고, 동시에 도착어 텍스트 생산이 문법적으로 올바르게 전환이 되었는지, 등가어로의 전환 과정에 공간의 재구성과 비수지 신호의 강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모니터링 전략은 생산된 표현의 자체 수정(repair) 현상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모니터링에 의해 표현의 결함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이 의도적으로 생략될 수도 있다.

통역사 D는 9회의 수정이 있었으며, 통역사 E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통역사 D의 경우 다른 통역사들에 비해 수정이 더 많았는데, EVS와 TTS가 늘어남에 따라 후속 문장에서의 정보처리량이 늘어나면서 수정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예문 8>

출발어: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의 방과 후 생활도 살피겠습니다.

도착어: [장애] [중] [고등학생] [지시]^(R, 좌측 반원) [**학교**]^(비수지:단어 수정) [**졸업**] [**후**] [**고개 흔들**] [**학교**] [**끝나다**] [**후**] [**돕다**]^(좌측) [**주다**]^(R, 좌측)

10) 압축(Compression)

동시통역에서 압축은 텍스트의 복수 표현을 줄여서 변환하는 것으로, 출발어 텍스트를 더 짧은 도착어로 축소하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Tryuk, 2010). 출발어의 표현을 줄인다는 점에서 ‘요약’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복수 표현을 통합하여 변환하는 점을 토대로(白澤麻弓, 2003), 수어의 특징 가운데

비수지의 문법 요소, 일치동사, 역할 전환, 생산적 수어, 공간의 통사론적 사용 등으로 원래의 텍스트 표현이 줄면서 통합되어 시간의 효율성을 높인 경우를 압축 전략으로 보았다. 요약은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하게 되면서 의미 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에, 압축은 의미 누락 없이 텍스트 표현이 동시에 통합되면서 시간이 단축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통역사 A, B, E의 경우 3회, 5회, 7회의 압축을 사용하였으며, 통역사 C와 D는 사용하지 않았다. <예문 9>에서는 출발어 텍스트의 ‘쉬지 않고 부지런히’를 통역사는 [노력하다]라는 한 단어로 수지 표현하였는데, 비수지 신호의 강조 표현을 동시에 구사함으로써 시간을 줄이며 표현을 통합하였다.

<예문 9>

출발어: 우리는 선진사회를 향해 쉬지 않고 부지런히 나아가야 합니다.

도착어: [발전하다] [나라] [위하다] [노력하다]^(비수지:강조) [필요하다]

11) 누락(Omission)

누락은 생략과 달리 의도치 못하게 빠뜨리는 것이나, 통역의 생산을 위해 모니터 링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용어나 도착어 표현이 어려운 경우 의도적인 누락도 발생하게 된다. 통역사 A의 경우 5회의 누락을 한 반면에 통역사 B의 경우에는 누락을 하지 않고서 통역을 수행하였다.

<예문 10>

출발어: 그런 병원들은 전동식 수술대, 이동식 초음파 장비, 휠체어용 체중계 등을 갖추었습니다.

도착어: [전자] [수술하다]^(좌측) [이동하다]^(R, 좌측→우측 반원) (누락) [휠체어]^(양손, ‘바퀴’ 수어) [저울바늘 동작] [여러 가지] [식]^(2회, 좌측→몸앞) [안락하다]^(턱 밑) [편안하다] [만들다] [-있]^(-던)

12) 부가 설명(Additional Explanation)

부가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충 설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추가’ 전략에 해당될 수 있으나, 통역에서는 두 언어 사이에서의 사회·문화적 정보 차이를 줄이는 과정이 발생하게 되기에(Jones, 1998), 본 연구에서는 추가와 부가 설명을 구분하였다. 부가 설명에는 통역사의 주제 지식이나 배경지식이 활용된다.

통역사들은 평균 1.8회의 부가 설명을 하였는데, 통역사 A와 D는 각각 4회와 3회

의 부가 설명을 하였고, 그 외 통역사들은 없거나 1회의 부가 설명을 구사하였다.

<예문 11>에서 연사는 과거의 경험을 얘기하였는데, 통역사는 일반적인 청인 사회에서 알 수 있는 연사의 정보(‘전라도 지사’)를 덧붙여 설명하였다. <예문 12>의 경우 화자가 제시한 인물 이름을 지화로 먼저 사용한 후, 농인의 사회와 문화에 맞는 부가 설명으로 해당 인물에 대한 ‘얼굴 수어 이름’ **을 사용하였다.

<예문 11>

출발어: 저는 지사로 일하면서 장애인화 산부인과 병원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착어: [나] [전에] [전라도]^(우측) [장]^(R, 남자수형, 우측) [때] [아기]^(우측) [낳다]^(우측) [병원]^(우측) [곳]^(우측) [지점] [장애]^(우측) [전문]^(우측) [세우다]^(우측) [-었]^(-던) [있다]

<예문 12>

출발어: 조금 전 우리 행사추진협의회 이대섭 회장님께서 구체적인 꾸지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착어: [조금] [전] [#이대섭]^(R) [이대섭]^(L, 얼굴수어) [장]^(L, 남자수형, 좌측) [부족하다]^(R, 왼손 남자수형 유지) [불만하다]^(R, 왼손 남자수형 유지) [건의하다]^(좌측→몸쪽)

13) 요약(Summarizing)

요약은 출발어 텍스트의 발화 속도가 빠르거나 시간 제약이 심할 때 중요한 요점만을 간추려 전달하는 것이다(원종화, 2010). Kalina(1998)는 동시통역 상황에서의 요약은 경제성을 살리면서도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로 요약을 덧붙임으로써 의미를 더욱 효율적으로 전할 수도 있다.

연사의 발화 속도가 71.7 SPM으로 느린 편이며, 문장 간 1-2초의 휴지가 일정하게 주어진 점을 감안할 때 통역사들은 시간 제약이 적어 요약을 적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문 13>에서 추가 요약하여 덧붙였는데, ‘그런 분들에게는’을 기존 발화했던 내용(‘장애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로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을 요약하여, 수어로 [시설]^(좌측) [무리에서 나오다]^(좌측→우측) [원하다]로 전하였다. 그리고 통역 시차가 늦어지면서 한 문장 안에서 중요한 요점만 간추려 전하는 경우도 있었다.

** 농인의 경우 부모가 지어준 음성언어 형식의 이름 이외에, 수어로 만든 ‘수어이름(name signs)’을 사용하는 문화가 있다. 이 수어 이름은 수어 언어공동체의 문화인 동시에 농문화의 한 단면이다(이하나·윤병천, 2006).

<예문 13>

출발어: 그런 분들께는 주거 서비스와 자립 정착금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도착어: [시설]^(좌측) [무리에서 나오다]^(좌측→우측) [원하다] [집]^(우측, 2회) [자립]^(스스로+서다) [돕다]^(단어 수정) [살다] [돈]^(R) [돕다] [주다]^(양손, 몸앞)

14) 직역(Transcoding)

비상 전략은 통역사가 출발어 텍스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여, 텍스트의 표면구조에 의존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전략으로(Kohn & Kalina, 1996), 출발어 텍스트를 그대로 차용한 직역과 불가피하게 정보의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 누락이 있다.

통역사는 <예문 14>처럼 더 좋은 용어나 어휘로 대체가 어렵다고 여길 경우에 지화로([#인공지능]^(R)) 처리함으로써 후속 문장에 대한 인지적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통역사들은 평균 1.2회의 직역을 하였는데, 통역사 E의 경우 직역을 구사하지 않았다.

<예문 14>

출발어: 인공지능은 발달장애인들의 생활을 광범하게 도와드릴 것입니다.

도착어: [#인공지능]^(R) [지시]^(R, 우측) [발견하다]^(좌측) [장애]^(좌측) [닫다]^(좌측) [장애]^(좌측) [돕다]^(좌측) [많다]

15) 예측(Anticipation)

통역 과정에서 예측은 빠른 시간 안에 의미를 파악해 후속 내용을 미리 생각하며, 새롭게 들어오는 정보와 연관 지으면서 통역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한다.

Kalina(1998)에 의하면 예측에는 상향식(bottom-up) 예측, 하향식(top-down) 예측이 있다. 상향식은 출발어 텍스트의 언어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의미를 파악해 가는 방법이다. 하향식은 통역사의 지식을 바탕으로 출발어 텍스트를 이해하는 전략이다. 예측에는 추론(inferencing)도 포함된다.

동시통역의 경우 상황과 문맥에 따라 예측의 방법이 달라지는데, 원고나 구체적인 상황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충분한 예측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예측 역시 인지 이해 과정의 일환으로, 통역사의 인지과정 중에 발생하는 현상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예측의 현상으로(Van Besien, 1999; Seeber & Kerzel, 2012), <예문 15>와 같이 출발어 텍스트에서 아직 발화되지 않은 내용(‘앞으로’)을 통역사가 앞서 구사한 사례를 예측 현상으로 보고 분석한 결과 평균 0.8회가 나왔다.

<예문 15>

출발어: 4차 산업혁명은 장애인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도착어: [앞으로]^(L) / [#차]^(R) [산업] [새롭다] [고치다]^(손바닥 뒤집는 동작) [지시]^(R, 우측) [장애]^(좌측) [살다]^(좌측) [관계하다]^(우측 위+좌측 아래) [새롭다]^(좌측) [발전하다]^(좌측)

16) 일반화(Generalization)

일반화는 동일한 범주의 여러 하위 개념을 상위 개념의 의미로 표현함으로써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Gumul & Łyda, 2007). Jones(1998)는 화자의 메시지 중에서 전부 표현하는 것이 반드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 일반화하여 하나의 포괄적인 단어로 표현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통역사들은 사용이 없거나, 1-2회 정도 사용하였다. <예문 16>에서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상위 개념인 ‘장애인’으로 표현하였으며, 이후 내용과 연결되면서 의미가 일관성 있게 전해지고 있다.

<예문 16>

출발어: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의 방과 후 생활도 살피겠습니다.

도착어: [장애인]^(좌측) [학교]^(좌측) [끝나다] [후] [오다]^(좌측→우측) / [지시]^(L, 오른손 지시) [보호하다]^(L, 오른손 ‘오다’ 위) [돕다]^(우측) [있다]^(L)

2. 수어 동시통역의 전략별 유형

동시통역은 시간적 제약 하에서 이루어지는 고도의 정보 집약적 과정으로, 시간과 인지 과부하에 따른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Tryuk(2010)는 ‘전략’이란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정 행동 패턴(a specific pattern of behaviour)이며, 이것은 효율성과 효과 면에서 주어진 작업의 성과를 향상하기 위한 통역사의 의식적인 행동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전략적 기술들은 체계적 교육과 학습을 통해 연마해

가는 전문 기능으로(류현주, 2006), 통역 전략의 유형을 구분함으로써 통역 교육 및 체계적인 훈련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통역 과정별로 구분을 하면 Seleskovitch(1968)는 의미를 지닌 메시지를 듣고 분석하여 이해하는 단계, 의미에 대한 개념 및 아이디어만을 기억하는 단계, 수신자에게 맞춰진 새로운 언어 형태로 생성하는 단계로 구분하였다. Cokely(1992)는 메시지의 수용, 준비 과정, 단기 기억 보존, 의미론적 의도 파악, 의미론적 등가표현, 통사적 메시지 구성, 메시지 산출의 단계로 구분하였다. Riccardi(2005)는 출발어 텍스트에서 메시지 수신, 해석, 처리, 최종적으로 대상 언어로 생성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통역의 과정별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 Kohn과 Kalina(1996)는 메시지를 인식하는 것과 생성하는 전략을 구별하였다. 인식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지식 활성화, 예측, 의미분할(Chunk) 및 지연을 제시하였고, 여기에 추론, 기억, 모니터링 전략을 포함하였다. 언어를 생성하는 전략으로는 적응, 내용중화(Neutralization) 또는 회피전략을 적용할 수 있으며, 압축, 일반화 또는 추가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통역사가 사용할 수 있는 비상 전략으로 출발어 텍스트의 표현 구조를 차용한 직역(Transcoding) 및 압축이 있으며, 보상 전략으로는 생략, 근사, 여과, 불완전한 문장 생성 및 대체를 포함하였다.

Kalina(1998)는 이해를 위한 전략으로는 준비, 추론, 예측, 의미분할 과정이 있으며, 도착어로 생산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통사변환, 단어나 문구의 치환, EVS 조절, 문체 조절, 요약, 응집성 조정 등을 제시하였다. 요약 전략에는 선택과 삭제, 일반화 기술이 있으며, 긴급 상황에서의 비상 전략으로는 내용을 중화, 희석 또는 단순화시키거나 단어나 문구를 대체하는 전략 등이 있다. 그리고 모니터링 전략은 통역 일반의 모든 과정에 적용되는 전략으로 보다 높은 메타(Meta) 기술이면서 통역사 자신의 통역물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白澤麻弓(2003)는 수어통역 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분석에서 통역의 변환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생략, 바꾸어 말하기, 동등, 덧붙임, 원어 차용, 압축·통합 등으로 나누었는데, 여기서 압축·통합 전략을 텍스트의 복수 표현을 줄여서 변환하거나, 단어들의 통합, 어형변화로 의미를 덧붙임, 비수지에 의한 동시 결합, 그리고 비수지에 의한 문법 표지로 의미하였다.

Riccardi(2005)는 메시지의 이해, 생산, 일반 전략, 그리고 비상 전략으로 구분하였다. 메시지 이해를 위한 전략에는 예상, 세분화, 정보 선택, 지연 또는 대기가 있으며, 발화를 위한 생산 전략에는 이해, 확장, 근사 전략, 일반화, 운율 요소 등이 사용된다. 통역 전반에 사용되는 전략으로는 모니터링이 있으며, 비상 전략에는 직역, 누락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원종화(2010)는 전략 유형을 3가지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언어적 전략(Linguistic Strategies)에는 응집, 병렬 재구조화, 바꿔 말하기, 수정, 분절, 문장 분할, 통사 변환,

치환(단어 치환), 원어 차용이 있으며, 발화, 청취 등의 인지적 언어 정보처리를 위한 인지적 전략(Cognitive Strategies)에는 예측, 압축, 기억, 배경지식 활용이 있다. 원 메시지와 도착 메시지 간의 문화적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문화적 전략(Cultural Strategies)에는 추가, 일반화, 생략, 구체화, 간략화, 대체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전략들과 사례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수어의 시각언어 특성을 반영한 전략 유형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메시지 이해를 위한 인지 전략(Cognitive Strategies for Comprehend)으로, 통역을 위해 출발어 텍스트를 듣고 분석하여 이해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의 전략은 출발어 텍스트 입력과 도착어 사이의 최소 시간 지연을 유지하는 EVS(Ear-Voice Span), 출발어 텍스트 문장 간에 잠시 쉬는 휴지(Pause), 의미 단위로 묶는 의미덩이 짓기(Chunking), 다음 내용을 미리 생각하면서 들어오는 정보와 연관 짓는 예측(Anticipation)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둘째는 의미 효과를 위한 생산 전략(Strategies for Effectiveness)으로, 통역이 수신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과정인 점을 감안하여(Seleskovitch, 1968), 출발어 텍스트의 의미를 더욱 효과적으로 부각할 수 있는 전략들을 포함하였다. 문장의 구성 방식을 변경하는 통사구조 변환(Syntactic Transformation), 단어나 구, 절에서 의미가 유사한 단어로 변경하는 단어 및 구절 대체(Substitution), 출발어 텍스트에서 개념의 하위정보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구체화(Particularization), 접속사에서부터 수식어, 또는 동일한 형태를 반복하는 추가(Addition), 그리고 언어와 문화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부가 설명(Additional Explanation) 등이다.

셋째는 표현의 경제성 전략(Strategies for Efficiency)으로, 동시통역이 출발어 텍스트의 수신과 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시간 사용의 효율성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의미상 중복되는 어휘를 생략하거나 불필요한 단어 등의 반복을 줄이고 가능한 한 짧은 형식을 선택하게 된다(Jones, 1998; Gumul & Łyda, 2007). 특히 수어는 3차원의 공간 양식을 통해 두 손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메시지를 생산할 수 있다(Napier, 2006). 사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는 시간적 압박 하에서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생략(Omission), 중요한 요점을 간추려 전달하는 요약(Summarizing), 공간에서 비수지 신호, 일치동사, 역할 전환, 생산적 수어, 통사론적 공간 사용 등을 통해 출발어 텍스트의 표현을 더욱 짧게 사용하여 시간을 줄이는 압축(Compression), 여러 항목들을 상위 개념의 포괄적인 의미로 표현하는 일반화(Generalization) 등이다.

넷째는 비상 전략(Emergency Strategies)으로, 출발어 텍스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여 의미론적 내용보다 표면 구조에 의존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전략이다(Kohn & Kalina, 1996). 출발어 텍스트를 그대로 차용한 직역(Transcoding)과 불가피하게 정보의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 누락(Omission)을 사용할 수 있다.

다섯째는 통역의 전반적인 과정을 점검하는 모니터링 전략(Monitoring)이다. 일반적

으로 통역의 전 과정에 관여하며(Kalina, 1998), 통역 결과물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스스로 감시(Self-Monitoring)하는 등 다중 과제가 동시에 일어나는 실시간 프로세스이다(원종화, 2010). 모니터링은 출발어의 내용을 들으면서 앞으로 주어질 후속 정보를 유추하고, 동시에 도착어 텍스트 생산이 문법적으로 올바르게 전환이 되었는지, 등가어로의 전환 과정에 공간의 재구성과 비수지 신호의 강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모니터링 전략은 생산된 표현의 자체 수정(Repair)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표현의 결함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이 의도적으로 생략될 수도 있다.

사례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수어 동시통역의 전략 유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Table 3> Strategy Categories for Simultaneous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Category	Strategies
1. Cognitive Strategies for Comprehend	① EVS ② Pause ③ Chunking(Waiting) ④ Anticipation
2. Strategies for Effectiveness	① Syntactic Transformation ② Substitution ③ Particularization ④ Addition ⑤ Additional Explanation
3. Strategies for Efficiency	① Omission(생략) ② Summarizing ③ Compression ④ Generalization
4. Emergency Strategies	① Transcoding ② Omission(누락)
5. Monitoring	① Repair

IV. 결론 및 제언

수어통역은 수어를 언어로 사용하는 집단과 음성언어를 사용하는 집단 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통역 과정은 시간적, 인지적 제약 하에서 높은 정보처리 과정을 거친다. 통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약을 극복하고, 수행 기억의 부담을 줄

이기 위해 수어통역사는 전략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간 전략에 대한 연구들이 품질에 대한 평가 관점에서 이루어져 오면서, 수어통역 과정에서의 체계적인 전략 연구가 부재하였다. 특히 수어의 시각언어 특성을 반영한 통역 전략이 체계적으로 제시된 바가 없어 통역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어 동시통역 방법의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수어 동시통역(L1→L2)에서 통역사들이 사용하는 전략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수어의 시각언어 특성을 반영한 전략 유형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통역사들의 전략 사례에 대해 분석한 결과, EVS 평균은 2.9초였으며, 그 외에 사용 빈도가 높은 순서로 나열하면 단어 및 구절 대체(33.5%), 휴지(문장 간 휴지, 15.7%), 추가(14.0%), 생략(9.6%), 의미덩이 짓기(대기, 8.0%), 통사구조 변환(7.8%), 구체화(2.9%), 수정(1.9%), 압축(1.8%), 누락(1.2%), 부가 설명(1.1%), 요약(0.8%), 직역(0.7%), 예측(0.5%), 일반화(0.5%) 전략 순으로 사용되었다.

단어 및 구절 대체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온 이유로는 통역의 과정이 단어 대 단어의 치환이 아니라, 출발어의 의미(Sense)를 찾는 탈언어화(Deverbalization) 과정에서 도착어 등가 의미에 맞는 수어 어휘로 대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통역 결과물에 대한 농인의 의미이해 평가에서 평균 91.2점이 나온 것을 볼 때 통역사들은 등가 의미의 수어 어휘로 적절하게 변환한 것으로 파악된다. 통역의 과정에서 출발어 텍스트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도착어 생산을 위해 등가 의미의 수어 어휘 용례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교육되어 자연스럽게 구현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예측이나 일반화 전략이 적게 사용된 것은 원고가 주어지지 않은 동시통역 상황을 감안할 수 있다. 예측의 경우 일반적으로 통역사들은 평균 85초마다 한 번씩 예측을 하며(Van Besien, 1999), 이를 통해 새롭게 들어오는 정보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된다. 드러나는 현상을 적었으나 의미이해 평가를 통해 유추해 볼 때 통역사들은 예측을 하면서 일관성 있게 내용을 통역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화의 경우 표현의 경제성 전략 유형의 하나로, 상위개념의 포괄적인 단어로 표현하는 전략이다. 원문 텍스트의 속도가 빠르지 않으며(71.7 SPM) 문장 간 일정한 휴지(평균 1.6초)가 주어지면서 원문 텍스트를 줄일 필요가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례 분석을 토대로 수어 동시통역의 전략 유형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메시지 이해를 위한 인지 전략(Cognitive Strategies for Comprehend)에는 EVS(Ear-Voice Span), 휴지(Pause), 의미덩이 짓기(Chunking), 예측(Anticipation)이 있다.

둘째, 의미 효과를 위한 생산 전략(Strategies for Effectiveness)에는 통사구조 변환(Syntactic Transformation), 단어 및 구절 대체(Substitution), 구체화(Particularization),

추가(Addition), 부가 설명(Additional Explanation)이 있다.

셋째, 표현의 경제성 전략(Strategies for Efficiency)에는 생략(Omission), 요약(Summarizing), 압축(Compression), 일반화(Generalization)가 있다.

넷째, 비상 전략(Emergency Strategies)에는 직역(Transcoding)과 누락(Omission)이 있다.

다섯째, 메타(Meta) 전략으로의 모니터링(Monitoring)은 생산된 표현을 수정(Repair)하는 전략이 있다.

이상의 사례 분석과 전략들을 유형별로 구분할 때 전략별 개념에 중점적으로 작용한 부분을 감안하여 구분하였으나, 전략들이 통역 과정에서 상호의존적으로 작용되는 등(Kalina, 1998) 구분의 경계가 모호한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어통역사의 전략 사례를 분석하면서 시각언어 특성에 맞는 다섯 가지 전략 유형을 구분하였다. 특히, 표현의 경제성을 위한 전략 가운데 ‘압축’ 전략은 수어의 언어 특성을 활용하기에 유용하다. 수어는 공간을 언어 형태로 사용하면서 비수지 신호, 일치동사, 역할 전환, 생산적 수어, 공간의 통사론적 사용 등을 통해 출발어 텍스트의 표현을 더욱 짧게 압축하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공간을 활용하면서 구(old) 정보를 공간을 통해 대명사화하여 사용함으로써 의미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수어의 시각언어 특성을 고려할 때 압축 전략은 시간 제약이 있는 동시통역 상황에서 매우 탁월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전략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맥락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주어지지 않아, 사용 빈도가 적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압축 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인지 단계에서부터 연합, 자동화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하다.

추후 후속 연구들을 통해 수어의 시각언어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략 유형과 방법들이 제시되고, 이에 따른 교육 및 훈련 방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Choi, M. S. (2019). Interpreting Strategies to Deal with the Presentation of old and new Information in the Source Text.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21(1), 139-158.
- [최문선 (2019). 원문의 구정보-신정보 전개에 따른 통역 전략: 한영 통역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1(1), 139-158.]
- Choi, S. B. (2008). Analysis and Evaluation of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Errors and Establishment of Web-based Sentence-oriented Sign Language Data. *Conference*, 3-29.
- [최상배 (2008). 수화통역 오류 분석과 평가 및 웹 기반 문장 중심 수화언어 자료 구축. **토론회**, 3-29.]
- Choi, S. B. (2010). Analysis on Sign Language Simultaneous Interpretation Processes of Korean

- Sign Language Interpreter at the College Center for Handicapped Students: Focused on H college Center for Handicapped Student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12(1), 23-45.
- [최상배 (2010). 장애학생지원센터 수화통역사의 수화언어 동시통역 과정 분석: H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특수아동교육연구**, 12(1), 23-45.]
- Christoffels, I. K., & Annette, M. B. de Groot. (2005). *Handbook of Bilingu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 Cokely, D. (1986). The Effect of Lag Time in Interpreter Errors. *Sign Language Studies*, 53, 341-375.
- Cokely, D. (1992). *Interpretation: A sociolinguistic Model*. Burtonsville, MD: Linstok Press.
- De Wit, M., & Sluis, I. (2012). Sign Language Interpreter Quality: the Perspective of Deaf Sign Language Users in the Netherlands. *The Interpreters' Newsletter*, 19, 63-85.
- Gerver, D. (1974). The Effects of Noise on the Performance of Simultaneous Interpreters: Accuracy of Performance. *Acta Psychologica*, 38, 159-167.
- Gile, D. (1995). *Basic Concepts and Models for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ing*. Amsterdam: John Benjamins.
- Gumul, E., & Łyda, A. (2007). The Time Constraint in Conference Interpreting: Simultaneous vs Consecutive. *Research in Language*, 5, 165-183.
- Huh, J. U. (2020). A Study on Learner's Sight Translation Strategy for Improving Simultaneous Interpretation Skills. *The Journal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Education*. 18(2), 5-35.
- [허지운 (2020). 동시통역을 위한 학습자 문장구역 전략 연구. **통번역교육연구**, 18(2), 5-35.]
- Hwang, S. W. (2007). A Study on the Korean-English Simultaneous Interpretation Strategy based on Syntactic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English. Master's thesis,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황세원 (2007). 한국어와 영어의 구조적 차이에 따른 한영 동시통역 전략.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Jeong, H. J. (2007). *Understanding Interpretation & Translation*. Hankookmunhwasa Press.
- [정호정 (2007). **제대로 된 통역·번역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Jeong, S. J. (2020). A comparison between German and Korean Sign Language - based on Sentence Types and Wording. *Deutsch als Fremdsprache in Korea*. 47, 223-246.
- [정수정 (2020). 한국과 독일 수화언어 비교분석-어순과 문장유형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47, 223-246.]
- Jones, R. (1998). *Conference Interpreting Explained*.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 Kalina, S. (1998). *Strategische Prozesse beim Dolmetschen: Theoretische Grundlagen, Empirische Fallstudien, Didaktische Konsequenzen*. Tübingen: Gunter Narr.
- Kim, C. K., & Youn, B. C. (2011). *Introduction to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Gyeonggi: Yangseowon Press.
- [김칠관, 윤병천 (2011). **수화통역학개론**. 경기: 양서원]
- Kim, K. H. (2012). Simultaneous Interpretation and Working Memory: how to Overcome

- Cognitive Interferences. Master's thesis,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김경희 (2012). 동시통역과 수행기억: 인지적 한계 상황과 극복 방안.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oh, I. K. (2021). Analysis of Error Types in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during COVID-19 Briefing.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Research Institut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39-147.
- [고인경 (2021). 코로나19 정례 브리핑 수어통역의 오류 유형 분석. **한국의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학술대회**, 139-147.]
- Kohn, K., & Kalina, S. (1996). The Strategic Dimension of Interpreting. *Meta*, 41(1), 118-138.
- Kurz, I. (2001). Conference Interpreting: Quality in the Ears of the User. *Meta*, 46(2), 394-409.
- Lee, H. N., & Yun, B. C. (2006). A Study on Name Signs for Deaf People. *Journal of Speech & Hearing Disorders*, 15(3), 231-247.
- [이한나, 윤병천 (2006). 농인의 수화이름에 관한 연구. **언어치료연구**, 15(3), 231-247.]
- Lee, J. O. (2012).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Complex Sentences in the Korean Sign Language. Doctoral thesis, Daegu University.
- [이정옥 (2012). 한국수어의 복합문 실현 특성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Lee, J. S. (2016). Study on Improving Overall Efficiency of Korean to Chinese Simultaneous Interpretation: Focusing on Segmentation and Minimizing Sense Unit.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18(1), 131-144.
- [이정순 (2016). 한-중 동시통역 기법 연구-반복, 단순화, 전환 기법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8(1), 131-144.]
- Lee, J. W., & Nam, K. H. (2014). *Introduction to Korean Sign Language Linguistics*. Gyeonggi: Nanam Press.
- [이준우, 남기현 (2014). **한국수어학개론**. 경기: 나남]
- Lee, M. G. (2012). Error and Coping Strategy during Simultaneous Interpreting.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14(2), 127-151.
- [이미경 (2012). 동시통역과정에서의 오류와 전략적 대응: 한영동시통역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4(2), 127-151.]
- Lee, S. S. (2015). A Study on the Role of Interpreters and Strategic Techniques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Strategic Techniques: Focusing on Omission.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 [이순수 (2015). 통역사의 역할과 동시통역에서의 전략기법에 관한 고찰-전략기법: 언어생략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Lee, T. H. (2005). Interpreter Information Processing Strategy and Accuracy of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7(2), 139-155.
- [이태형 (2005). 통역사의 정보처리 전략과 동시통역의 정확도. **통역과 번역**, 7(2), 139-155.]
- Lee, Y. H. (2008). A Morphological Study on the Simultaneous Complex Structure of Korean Sign Language, Master's thesis, Kangwon University.
- [이윤희 (2008). 한국수화언어의 동시적 결합구조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

- 원 석사학위논문.]
- Miller, G. A. (1956). The magical Number Seven, Plus or Minus Two: Some Limits on our Capacity for Processing Information. *Psychological Review*, 63(2), 81-97.
- Min, U. J. (2013). Analysis Cases of Simultaneous Interpretation from the Korean Language to Korean Sign Language and to Evaluate Quality of Interpretation. Doctoral thesis, Nazarene University.
- [민은주 (2013). 한국어-한국수화 동시통역 사례분석 및 평가에 관한 연구. 나사렛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Nam, K. H. (2003). Syntactic Sign Space and Topographic Sign Space of Korean Sign Language.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 [남기현 (2003). 한국수화의 통사적 수화 공간과 지형적 수화 공간.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Nam, S. W. (2006). *Comprehending and Building Oral and Written Language*. Seoul: Hankookmunhwasa Press.
- [남성우 (2006). **통번역의 이해와 수행**. 서울: 한국문화사]
- Napier, J. (2006). Effectively Teaching Discourse to Sign Language Interpreting Students. *Language, Culture and Curriculum*, 19(3), 251-265.
- Napier, J. (2016). *Linguistic Coping Strategies in Sign Language Interpreting*.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 Nilsson, Al. (2010). *Studies in Swedish Sign Language : Reference, Real Space Blending, and Interpretation*. Stockholms universitet.
- Padden, A. (1990). *The Relation between Space and Grammar in ASL Verb Morphology*.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 Piccaluga, M., & Harmegnies, B. (2006). Chunking Strategies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ResearchGate*, 6.
- Pöschhacker F. (2004). *Introducing Interpreting Studies*. London: Routledge.
- Riccardi, A. (1999). Interpretazione Simultanea: Strategie Generali e Specifiche. Interpretazione Simultanea e Consecutiva: Problemi Teorici e Metodologie Didattiche. *Milano: Hoepli*, 161-174.
- Riccardi, A. (2005). On the Evolution of Interpreting Strategies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Meta*, 50(2), 753-767.
- Ryu, H. J. (2006). *Acquisition and Training of Professional Interpretation Skills*. Pusan: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ress.
- [류현주 (2006). **통역 전문 기술의 습득과 훈련**.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Schlenker, P. (2017). Super Monsters I: Attitude and Action Role Shift in Sign Language. *Semantics and Pragmatics*, 10(9).
- Seeber, K. G., & Kerzel, D. (2012). Cognitive Load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Model Meets Data.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ism*, 16(2), 228-242.
- Seleskovitch, D. (1968). *L'Interprète dans les Conférences Internationales Problèmes de*

- Langage et de Communication*. Paris: Classiques Garnier.
- Song, M. Y. (2016). A Study on the Syntactics and Semantics Analysis of Korean Sign Language Interpreter's Interpreting on TV News. Master's thesis, Kangnam University.
[송미연 (2016). TV뉴스 한국수화언어 통역의 통사·의미론적 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Song, M. Y., & Hong, S. E. (2020). A Study on the Iconicity of Productive Signs in the Korean Sign Language(KSL) Corpus-by Describing the Different Image-Producing Techniques. *The study of Education for Hearing-Language Impairments*, 11(1), 109-139.
[송미연, 홍성은 (2020). 한국수어의 생산적 수어 어휘에서 나타난 도상성 -이미지 형성 기법을 중심으로-.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11(1), 109-139.]
- Tissi, B. (2000). Silent Pauses and Disfluencies i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A Descriptive Analysis. *The Interpreters' Newsletter*, 10, 103-128.
- Tryuk, M. (2010). Strategies in Interpreting: Issues, Controversies, Solutions. *Lingwistyka Stosowana*, 2, 181-194.
- Van Besien, F. (1999). Anticipation i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Meta*, 44(2), 250-259.
- Van Dijk, T. A., & Kintsch, W. (1983). *Strategies of Discourse Comprehension*. Academic Press.
- Viaggio, S. (2002). *The Quest for Optimal Relevance: The Need to Equip Students with a Pragmatic Compass*. John Benjamins.
- Won, J. H. (2010). Directionality in Korean-English Simultaneous Interpreting Strategies.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12(1), 131-156.
[원종화 (2010). 영-한 동시통역 전략의 방향성 연구. **통역과 번역**, 12(1), 131-156.]
- Youn, B. C. (2001). Linguistic Features of Sign Language and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Conference of the Korean Sign Language Society*, 74-89.
[윤병천 (2001). 수화의 언어적 특성과 수화통역. **한국수화학회 학술대회**, 74-89.]
- Youn, B. C. (2003). The Study on the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Non-manual Signals in Korean Sign Language. Doctoral thesis, Daegu University.
[윤병천 (2003). 한국수화의 비수지신호에 대한 언어학적 특성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Ziobro-Strzpek, J. (2019). Simultaneous Interpreting as a Demanding Strategic Operation-the Issue of the Interpreter's Experience. *Studia Pigioniana*, (22), 145-164.
- 白澤麻弓 (2003). 日本語-手話同時通訳の評価に関する研究: 手話通訳の客観的分析および聴覚障害者の期待充足度に基づいて. 筑波大学. 筑波大学. *言語文化*, 7, 111-134.

<국문 초록>

수어 동시통역 전략의 사례분석 연구

김 동 호 · 홍 성 은

[목적] 본 연구는 수어가 고유한 문법과 양식을 지닌 농인의 언어이며, 수어통역에서도 음성 언어와 동일한 방법과 메커니즘(mechanism)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토대로 수어 동시통역 전략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간 수어통역에 대한 품질 평가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통역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해 왔다. 그리하여 수어통역 현장에서의 실천적 대안과 방법을 제시하고자 수어의 시각언어 특성을 반영한 ‘수어 동시통역 전략의 사례’를 분석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방법]** 연구 방법은 수어통역사 5명을 대상으로 한국어(출발어, L1)에서 수어(도착어, L2)로 동시통역을 촬영하였으며, 이후 통역 결과물은 농인 3명에 의해 의미이해 평가를 받았다. 전략의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통역 전략들이 상호 관계 속에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등 구분의 어려움이 있으나, 전략의 개념에 더욱 일치한 부분을 구분하여 사례 분석하였다. **[결과]**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각언어인 수어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 유형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메시지 이해를 위한 인지 전략으로는 EVS(Ear-Voice Span, 청성시차), 휴지(Pause), 의미덩이 짓기(Chunking, 대기:Waiting), 예측(Anticipation)이 있다. 둘째는 의미 효과를 위한 생산 전략으로 통사구조 변환(Syntactic Transformation), 단어 및 구절 대체(Substitution), 구체화(Particularization), 추가(Addition), 부가설명(Additional Explanation)이 있다. 셋째는 표현의 경제성 전략으로 생략(Omission), 요약(Summarizing), 압축(Compression), 일반화(Generalization)가 있다. 넷째는 비상 전략으로 직역(Transcoding)과 누락(Omission)이 있다. 다섯째는 메타(Meta) 전략으로의 모니터링(Monitoring)은 수정(Repair)이 있다. **[결론]** 본 연구의 사례분석 및 전략유형을 통해 수어 동시통역의 실질적인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수어 통역 방법의 질적인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 수화언어, 수어통역, 수어통역 전략, 동시통역 전략

논문 접수(Received): 2023. 05. 12. / 심사 시작(Examined): 2023. 05. 12. / 게재 확정(Accepted): 2023. 06. 13.